



ACKNOWLEDGEMENT OF COUNTRY

땅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1.	We acknowledge the sovereign First Peoples of these lands and waters where we meet, the Nation (of the peoples). 우리는 지금 모임을 갖는 지역의 땅과 물의 주인이 호주 원주민, 국가 (민족)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We pay our respects to their elders past and present and to all descendants of this/these nations who have cared for this place since creation. 우리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원로 지도자들과, 창세로부터 이 땅을지키고 돌보아온 모든 후손들을 존중합니다.
	We also honour all othe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here today.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호주 원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	This land is God's land and God's Spirit dwells here. We acknowledge the people, traditional custodians of this land under God. 이 곳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전통적인 보호자로서 인정합니다.

We commit ourselves again to working for reconciliation in this land. 우리는 다시 한 번 호주 땅에서 화해를 가져오고자 노력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An "Acknowledgement of First Peoples" is a way of paying respect to First Peoples whenever we gather together, such as the commencement of worship, Church meetings and other occasions when the Church gathers. It is an important expression of:

- the covenant which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has with the Uniting Aboriginal and Islander Christian Congress
- the Preamble to our Uniting Church in Australia Constitution
- the affirmation by the 15th Assembly in 2018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ustralians as sovereign peoples in this land.

Acknowledgement of Country:

- recognises the place of Indigenous people as the First Peoples of this land
- promotes awareness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First Peoples
- formally acknowledges First Peoples ongoing connection to land

"호주 원주민들이 이 호주 땅의 원래 주인임을 인정하는 순서"는 호주연합교회의 모임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언제든 모임을 가질 때, 예를 들면 예배와 회의, 여러 행사들을 시작할 때 호주 원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 호주연합교회가 원주민기독교협의회와 맺은 언약적 관계이기에 중요합니다.
- 호주연합교회의 교단 헌법 전문에 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 2018년 제 15차 호주연합교회 전국총회에서 호주 원주민들이 호주 땅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음을 확언하였기에 중요합니다.

호주 원주민이 이 호주 땅의 원래 주인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 현재 모임을 갖고 있는 장소가 호주 원주민의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 호주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 호주 원주민들의 영토에 대한 연관성을 정중하게 인정합니다.



The Covenanting Painting:

This painting tells a sacred Creation story of the Wagalak sisters and speaks particularly of the alliance of four Clan Nations and their responsibilities for the land and waters of their yirralka (estates).

The painting also depicts the sacred ground where ceremonies take place and in particular the Wukindi ceremony, to restore relationship when blood is spilt and bring reconciliation.

The painting is in itself an initiation for UCA members to stand with members of the UAICC in their struggle for justice.

